

‘선의 집’과 『악의 꽃』

‘The house of the highest good’ and ‘A flower of evil’



최동호 | Choi, Dong-ho, KIRA
건축사사무소 마당소리

약력

- 홍익대학교 인문대학원
- 아카시아 건축상(2009-2010)
- 미학과 박사과정 수료
- 골드메달 수상
- 홍익대학교 출강(미학·예술과 건축)
- 건축사지편찬T/F위원회 위원

〈선의 집〉은 선한 옷을 입은 건축을 말한다. 선의 집에 도달한 승리자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선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이다. 아무리 광채가 나는 미라 할지라도 미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선의 속성을 모를 때는 미의 껍데기일 뿐이다. 즉 미가 선이 아니라, 선이 미라는 말로서, 미의 원인이 선이 된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최후에 크리톤에게 말하기를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에게 닭 한 마리 빗진 것이 있었다고 하였다. 즉 선의 이데아는 모든 것의 원류인 것이며, 그 최고선(summum bonum)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름답다.

인식의 최고 정상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이다. 이러한 미와 예술을 창작,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건축사가 존재한다.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정통적 희랍 미학에서는 ‘선의 결과가 미’라고 하면서 선이 결여된 미는 안 된다고 하는 보다 특정한 미의 개념으로 칼로카가티아(καλοκαγαθία/kalokagathia)라는 선미(善美,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플라톤은 에로스에 관한 대화편 『향연』에서 미보다 선은 상위개념으로서 그 〈선의 이데아〉는 심안(心眼)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미를 사랑하는 자를 애지자(愛知者, mousikos-erotikos-politikos-philosophos)라고 불렀다.

‘정치는 영혼을 보살피는 기술’(플라톤의 『법률』Nom, 650b)이라고 한다. 이 시대의 건축 여건에서는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약 2500년 전의 최고의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건축은 너무 기술주의적으로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건축 설계(관공서 발주의 경우)자격 조건에서 일정 공사금액 이상이면, 실적(PQ/pre-qualification)을 요구하고, 그 〈피큐점수〉로서 채점을 하고 등수를 매겨 줄을 세우

고, 젊고 실적 없는 건축사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설계자의 작품이 감리자에게 가면서(책임감리제) 설계자의 설 자리가 상실되는 옷지 못 할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작품은 있으나 작가가 없는 〈가상(eidolon)의 건축〉, 당당한 예술가로서 초대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건축사의 이 운명은 전부 위의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안타까운 현상 때문이다. 〈선의 집〉에는 향기가 난다. 〈악의 꽃〉은 허상의 부패한 미에서 선의 정토를 완성하고자 평생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작가의 고뇌가 있다.

건축사의 창작활동을 방해하는 모순적인 메커니즘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하며, 보다 훌륭한 작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발주처는 의지를 가지고 〈디자인 코리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현상설계(초기단계의 불필요한 과비용의 투시도, 조감도, CG와 모형 제작의 삭제 의무 규정화 등)방법을 도입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건축이 아름답다고 하는 미적 정당성(aesthetic justification)을 무시하고, 작품보다는 그저 기술적 과정성으로 산출된 현실태(에네르게이아, energeia)만 뒤 쫓아가는 어리석음이 상존하는 한 프리즈커 상(Pritzker Prize) 수상자가 나오리라는 기대는 한국에서는 요원하기만 하다.

건축사는 에로스의 ‘진리를 찾는 근본 충동’ 때문에 좋은 작품을 출산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건축의 원형(paradeigma)은 분류함으로써 미의 이데아를 보려고 하는 상승의 변증법을 통한 관조(觀照, theoria)적 단계에 도달하고, 이제 잘 만들었고, 아름답다는 〈건축미학의 절정〉에 오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야 이미 선의 집 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걸세.”(필레보스, 64c)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